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Relationship between Bully/victim Types and Coping with
Str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신 재 선*

Shin, Jae Seon

정 문 자**

Chung, Moon Ja

Abstract

The assessment of the 678 6th grade subjects of this study was with the Perry, Kusel, and Perry(1988) 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 and the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Min & Yoo, 1998).

Findings were that 14% of the children were bullies, 14% were victims, and 11% were bully/victims(bullies in one situation and victims in a different situation). Sex differences showed that boys who are victims and bully/victims used more passive coping than bully type boys. Bully and bully/victim types used more aggressive coping; victim types used more evasive coping. For girls, bully and bully/victim types used more passive coping than the victim types, who used more evasive coping. Bully types used more social support-seeking in their coping than victims and bully/victim types.

Key Words : 가해아(bully), 피해아(victim), 가해-피해아(bully/victim), 스트레스 대처행동 (stress coping strategies)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7월 30일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졸업, E-mail : sinjs3@hotmail.com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기간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데,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Hartup, 1983).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갈등이나 무시, 또는 배척 등의 소외감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를 실행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또래 괴롭힘, 일명 왕따 현상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또래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 들어 또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보상을 해주는 '왕따 보험'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이 더 이상 교육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은 특정 아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또래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것(Olweus, 1984)으로 정의된다. 특히 또래 괴롭힘은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춘재, 박금주, 1999; Olweus, 1994; Whitney & Smith, 1993) 이 때의 또래 괴롭힘 경험은 청년기 이후의 우울증이나 높은 범죄율과 같은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Olweus, 1993).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괴롭힘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래 괴롭힘은 발생유이나 형태에 있어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lweus(1984)는 괴롭힘의 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는 기존의 연구결과(Olweus, 1978; Rigby & Slee, 1991; Schwartz, Dodge, & Coie, 1993)들이 주로 신체적인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괴롭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남아의 또래 괴롭힘 발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특히 초등학생에게 더욱 두드러지는데, Smith(1994)에 따르면 중학생은 남녀 모두 간접적인 괴롭힘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남아는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이, 여아의 경우 간접적 괴롭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과 이동의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또래 괴롭힘을 받은 피해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낮고(Perry et al., 1988), 또래에게 거부되어 친구가 없으며(Hodge, Malone, & Perry, 1997; Perry et al., 1988), 불안해하고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 Smith, 1994; Olweus, 1984). 이에 반해 또래 괴롭힘의 가해아들은 불안을 나타내지 않았고,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lweus, 1991). 그러나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으며(Rigby & Slee, 1991) 청년기 이후 범죄나 알콜중독과 같은 문제행동

을 보이는 확률이 통제집단에 비해 4배나 높았다(Olweus, 199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이 가해아나 피해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Arora, 1996; Rigby & Cox, 1996) 이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또래 괴롭힘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가해아의 공격적 행동의 과정이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Perry et al., 1988; Perry, Willard, & Perry, 1990). 이 중에서도 특히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피해정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보고된 바 있다 (민유리, 2000; 신유림, 2000; Boulton & Smith, 1994; Perry et al., 1988; Schwartz et al., 1993). 이들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 중에는 가해아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향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아동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Olweus(197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피해아동을 크게 유발적 피해아(provocative victim)와 수동적 혹은 복종적 피해아(passive victim)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은 일직선상의 양극단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Bowers, Smith & Binney, 1994; Olweus, 1994; Perry et al., 1988)이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또래 괴롭힘의 유형별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와 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

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다. 특히 가해, 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은 가해집단은 물론 피해집단보다 더 우울한 성향을 보이고 불안점수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민아, 1999; 이춘재, 박금주, 1999; Slee & Rigby, 1993). 그러나 자아 존중감에서는 가해집단과 함께 피해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이민아, 1999).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뿐 아니라 가해, 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도 어느 한 차원에서만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이 아동의 내면화된 심리적 특성의 차이만 살펴봐왔을 뿐 이들의 행동전략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특히 아동후기는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심희옥, 2000). 그러나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또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보는 관점(Bloger & Zukerman, 1995; Elbata & Moos, 1991)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보는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될 경우, 사회적 심리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정서 및 심리상태가 반영될 수 있으며(Olfasen & Viernero, 2000), 대처행동은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한 중재변수라고 보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민하영, 유안진, 1998; Lazarus & Folkman, 1984; Parker & Endler, 1996). 특히 가해아나 피해아의 심리적 특성과 위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Perry et al, 1988),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이는 대처행동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와 대처행동과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직면한 문제 상황 해결방식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ijttebier & Vertommen, 1998; Ladd & Skinner, 2000).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Bowker, Bukowski, Hymel & Sippola, 2000)에서 공격적이고 인기가 없는 아동은 타인에 대한 소문 퍼뜨리기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공격적이지만 인기가 있는 여아의 경우, 문제 중심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명백히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또래

괴롭힘, 따돌림 등을 꼽고 있지만(민하영, 1999; 정혜경, 김경희, 2000; Olfasen & Viemero, 2000),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대처행동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더욱이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이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 및 대처전략을 탐색하여 이들의 사회적인 행동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이차적인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 2)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6학년

전체 여섯 학급의 아동 678명(남아 344명, 여아 3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가 자아개념이 발달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

며(Harter, 1983), 이 시기의 또래 괴롭힘 경험이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Olweus, 1993)를 참고한 것이다.

2. 연구 도구

1)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이 Wiggins와 Winder(1961)의 Peer Nomination Inventory (PNI)를 수정하여 개발한 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MPN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본래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에 대해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말로 번역하여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2개 문항(OO는 다른 아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OO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맞거나 밀린다)을 제외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연구보고(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와 이춘재, 곽금주(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생들 사이에 빈번하게 보고된 행동을 참고로 4문항(가해 2문항, 피해 2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가해성향 8문항, 피해성향 8문항이다.

괴롭힘 척도의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는 하나의 큰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의 첫 번째 행에는 응답자와 같은 학급의 동성급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표의 첫 번째 열에는 각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들에게 이 척도를 받으면 우선 첫 번째 행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자기 이름이 있는 줄에 ×표시를 하여 지워버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그 문항이 각각의 급우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문항이 씌어진 행과 이름이 씌어진 이름이 만나는 칸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표시할 수 있는 아동 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각 아동의 또래 괴롭힘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이 그 문항에 해당된다고 표시한 또래 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였다. 예를 들어 A라는 아동에 대해 20명의 동성급우 중 5명이 1번 문항에 표시한 경우, 이 아동의 1번 문항의 점수는 25점($5/20 \times 100 = 25$)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해서 이 아동의 또래 지명에 의한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가해성향 및 피해성향이 각 8문항씩이므로 아동 개개인이 받게 될 또래 괴롭힘의 가해점수와 피해점수의 범위는 각각 0~800점이다. 각 아동이 받은 괴롭힘의 가해점수와 피해점수를 남녀 각각 학급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표준점수(z점수)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산출된 z점수를 근거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 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나누었다.

본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해문항과 피해문항 총 16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어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의 요인구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가해성향은 .89였고 피해성향은 .88이었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민하영,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민하영,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5가지 하위 영역의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극적 대처행동 9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11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9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각 하위별 문항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대처행동 범주별 상대적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McCubbin, Olson과 Larsen(1981)의 척도를 정문자, 정현숙(1994)이 번안한 것을 참고로 하여 공격적 대처행동문항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문항에 각각 2문항과 3문항을 추가하였다. 총 45문항에 대해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각 하위범주별 5문항씩 총 25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중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한정하여 이 때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의 4점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친구관련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78, 소극적 대처행동 .79, 공격적 대처행동 .81, 회피적 대처행동 .74,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9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각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 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 소요시간, 응답 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7월 3일~14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6학년 남녀 아동 3-4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이 개별적으로 한 문항씩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한 후, 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계속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총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수정한 질문지(또래 괴롭힘 척도 총 16문항,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 45문항)를 가지고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 6학년 중 무선 선정한 5개 반의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이 두 가지의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2차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괴롭힘 척도 16문항(가해 8문항, 피해 8문항)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 25문항을 결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0년 9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하고,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각 학급의 명단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각 학급별 아동의 이름이 기입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을 전공하

는 대학원생 6명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자 한 반을 맡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하기 전 학생들의 솔직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비밀 보장을 강조하였다. 검사의 순서는 또래 괴롭힘 질문지를 먼저 실시한 다음 학급 전체적으로 수거한 후, 스트레스 대처행동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종류의 질문지를 시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또래 괴롭힘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학급별로 괴롭힘 가해점수, 피해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점수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둘째,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전략의 각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별 분포

또래 괴롭힘 가해점수가 높은 아동, 피해점수가 높은 아동, 가해-피해점수가 모두 높은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별 아동이 받은 괴롭힘 가해점수와 피해점수를 남녀 각각 학급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표준점수(z점수)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산출된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Olfasen과 Viemero(2000)이 사용한 구분기준에 따라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가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래 괴롭힘 유형별 구분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세 집단과 이에 속하지 않는 정상 집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또래 괴롭힘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분포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정상집단	전체
남아	49(7.2)	47(6.9)	41(6.0)	207(30.5)	344(50.7)
여아	47(6.9)	48(7.1)	36(5.3)	203(29.8)	334(49.3)
전체	96(14.1)	95(14.0)	77(11.3)	410(60.3)	678(100)

<표 1> 또래 괴롭힘 유형별 집단 구분 기준

또래 괴롭힘 유형	구분기준
가해집단	또래 괴롭힘 가해성향 z점수 ≥ 1 , 또래 괴롭힘 피해성향 z점수 < 1
피해집단	또래 괴롭힘 가해성향 z점수 < 1 , 또래 괴롭힘 피해성향 z점수 ≥ 1
가해-피해 집단	또래 괴롭힘 가해성향 z점수 ≥ 1 , 또래 괴롭힘 피해성향 z점수 ≥ 1

<표 2>를 보면 전체의 14.1%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성향이 높은 아동의 비율도 이와 유사한

14.0%로 보고되었다. 가해-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도 전체의 11.4%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또래 괴롭힘의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비율이 각각 전체 대상 아동의 7.22%, 6.9%로, 가해-피해집단은 6.0%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전체 6.9%가 가해집단, 7.1%는 피해집단이었으며, 가해-피해집단은 5.3%로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을 구하였다. 먼저 가해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사례수가 남녀 모두 다르게 나타나 이들 세 집단간의 변량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인의 5가지 범주 각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변량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보고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남아의 대처행동 하위영역별 평균점수와 일원변량분석

대처행동	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F
적극적 대처행동		2.50(.93)	2.39(.73)	2.33(.80)	.50
소극적 대처행동		1.49(.63) ^a	1.80(.56) ^b	1.71(.46) ^b	3.77*
공격적 대처행동		2.43(.68) ^a	1.71(.67) ^b	2.27(.67) ^a	14.20***
회피적 대처행동		2.29(.68) ^a	2.56(.46) ^b	2.23(.48) ^a	3.8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38(.47)	1.49(.49)	1.51(.48)	.99

* $p < .05$ *** $p < .001$

()안은 표준편차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나는 집단임

먼저 남아의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와 일원변량분석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적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가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이 가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가해집단에 비해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집단보다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피해집단은 소극적 대처행동의 사용에서는 피해집단의 특성을, 공격적 대처행동의 사용에서는 가해집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아의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와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여아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

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여아의 대처행동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와 일원변량분석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F
적극적 대처행동	2.79(.65)	2.48(.64)	2.71(.67)	2.73
소극적 대처행동	2.35(.78) ^a	1.99(.78) ^b	2.38(.89) ^a	3.24 [*]
공격적 대처행동	2.06(.48)	1.99(.44)	1.92(.50)	1.18
회피적 대처행동	2.09(.76) ^a	2.45(.50) ^b	2.19(.55) ^a	9.75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94(.66) ^a	1.70(.52) ^b	1.61(.53) ^b	3.81 [*]

* $p < .05$ *** $p < .001$

()안은 표준편차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나는 집단임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행동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은 가해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가해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은 피해집단에 비해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남아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집단은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 특히 가해-피해집단은 소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 둘 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가해집단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집단은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남녀 모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에서 뚜렷한 성차가 보고되었는데, 남아의 가해집단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여아의 가해집단은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 가해-피해집단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여아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집단의 경우 남아, 여아 모두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또래 괴롭힘 유형의 분포

우선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각각 14%에 해당되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아동, 그리고 피해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lweus(1994)가 13만 명의 노르웨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비율 즉, 가해아 7%, 피해아 9%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또래 괴롭힘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도구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Olweus(1994)의 연구는 수동적인 폭력, 즉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따돌림 행동만을 강조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 행동뿐 아니라 신체적, 언어적인 가해행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괴롭힘 행동을 조사하였으므로 Olweus(1994)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 개입된 아동을 학급별 평균을 기준으로 z 점수에 의해 분류하였으므로, z 점수 분포의 특성상 ± 1 표준점수에 해당되는 아동의 비율(16%)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이 높은 아동의 비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다른 연구들(이민아, 1999; 이춘재, 곽금주, 1999)이 11-

16%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피해성향이 높은 아동의 비율은 국내 연구결과들이 18-23%정도로 보고하고 있는데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다른 연구들은 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또래 괴롭힘의 피해정도를 더 크게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다른 아동이 지각하는 괴롭힘의 피해정도만으로 발생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급우들이 이를 인지할 정도로 피해수준이 매우 크거나 가시적인 피해만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의 11.4%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해와 피해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해-피해집단은 지금까지 또래 괴롭힘의 한 차원만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간과되거나 가해아동 혹은 피해아동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 전체 아동의 10%가 이러한 가해-피해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국내 연구결과들(이민아, 1999; 이춘재, 곽금주, 1999)에서도 11%의 아동이 가해 성향과 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는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 괴롭힘의 유형별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남아, 여아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또래 괴롭힘의 유형별 발생율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Hoover

& Oliver, 1991; Perry et al., 1988)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들(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민유리, 2000; Olweus, 1994)과는 다른 결과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다는 선행연구(Smith, 1991; Whitney & Smith, 1993)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괴롭힘 척도의 문항을 괴롭힘의 형태를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성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아동이 보이는 대처행동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아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차이를 보였고, 여아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녀 모두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우선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공격적 대처행동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회피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이 각각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또래 괴롭힘에서 피해성향이 높거나 가해-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남아는 또래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웠을 때, 혹은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느낄 때, 혼자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등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혼자서 울거나 고민에 빠지는 행동이 따돌림이

나 괴롭힘, 놀림 같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심희옥(200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배척되는 아동은 수동적인 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연구결과(양진희, 최기영,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있어 내면화 전략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되어 온 여아와 달리 남아의 소극적이고 내적인 대처행동은 적용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ijttebier, Vertommen, 1998)는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극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피해집단의 남아와 가해-피해집단의 남아는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적용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 가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의 남아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웠을 때, 혹은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느낄 때, 피해집단의 남아에 비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아동과 가해-피해 아동이 지닌 공격성과 충동성 정도에는 차이가 없지만(이상균, 1997), 가해성향만 높은 아동은 타인을 많이 공격하되 상대방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상대방을 굴복시켜 또래와의 공격적 상호작용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김현수, 1997) 가해-피해성향이 동시에 높은 아동은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해 공격적으로 저항한다(Perry et al., 1988)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Perry와 그의 동료들(1990)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 명백한 보상적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나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등이 있다고 하면서 가해-피해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아동은

또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능력이 부족한 아동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해-피해 성향이 동시에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피해집단의 아동처럼 피하거나 참기 보다는 부적절한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해-피해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 가해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소극적 대처행동은 피해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가해, 피해, 가해-피해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본 연구들은 피해아와 마찬가지로 가해-피해 집단의 아동 역시 불안, 우울 등의 내면적 행동문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이민아, 1999; 이춘재, 박금주, 1999; Perry et al., 1988; Olweus, 1994). 특히 우울의 하위차원 중 의욕이나 에너지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이춘재, 박금주, 1999),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회피적 대처행동의 경우, 피해집단의 남아가 가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의 남아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대처행동과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Beaver, 1997)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피나 도망의 대처행동이 많이 보인다는 결과와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은 불안점수가 매우 높았다는 선행연구들(최보가, 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6)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피해경험이 많은 남이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이

나 따돌림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지각하여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또래와 원만하게 지내는 아동일수록 도피적인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심희옥, 2000)에 비추어 볼 때, 또래 괴롭힘에서 피해경험이 많은 아동은 가해경험이나 가해-피해경험이 많은 아동에 비해 덜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소극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우선 소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친구와 싸우거나 친구가 자기를 따돌린다고 느낄 때, 또래 괴롭힘에서 피해성향이 높은 여아에 비해 가해성향이 높거나 가해, 피해성향이 높은 여아가 더 소극적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아의 가해집단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소극적 대처행동의 문항 내용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외현적인 행동보다는 친구와 싸우거나 다툰 후 혼자 있을 때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를 주로 묻는 문항이 많다는 점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대인간 친밀관계를 중시하도록 강화를 받은 여아는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고(Perry & Bussey, 1984) 남아보다 친구관계에 더 민감한 가치를 두고(한미현, 1996) 있기 때문에 가해아동은 이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피해집단의 여아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려드는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과 대

조적이다.

회피적 대처행동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피해집단의 여아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즉, 피해성향이 높은 여아는 다른 두 집단과 달리 친구와의 스트레스 상황자체에 대해 고민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되도록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등 문제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동은 사회적인 회피를 보였다는 Kochenderfer와 Ladd(1996), Slee와 Rigby(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래들과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회피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유발하게 되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즉 피해아동의 이러한 회피적 대응책은 또래 괴롭힘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가해집단의 여아가 피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의 여아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여아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소수의 친밀한 친구를 선호하므로 친구로부터 더 의미 있는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구와 싸우거나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피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Olweus, 1978; 1993, Hoover & Oliver, 1991) 가해집단의 여아들이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보인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문항들이 친구의 지지와 부모, 교사의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되어 이들간의 명확한 차이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친구관련, 부모-교사관련 등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국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경우,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을 각각 고려하여 이들이 각각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사용하는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일부 초등학교의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표집 과정을 통해 국내의 또래 괴롭힘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유형을 학급별 평균을 근거로 표준점수인 z점수를 통해 구분하였는데, 이 경우 또래 괴롭힘 유형별 분포가 z점수의 특성상 ± 1 표준점수에 해당되는 비율(16%)로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처행동 척도의 하위범주 중 소극적 대처행동의 문항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문항들의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하위범주가 명확히 구분되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연구가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 중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 괴롭힘 문제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들 세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

면 이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셋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또래 괴롭힘의 빈도실태나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데 반해 이들이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사회적인 기술에 있어서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각 유형별 아동에 대해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나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민유리(2000). 아동의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의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경숙·손희권·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신유림(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51-58.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1(1), 19-33.
- 양진희·최기영(1996). 아동의 또래간 인기도와 대인 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1), 259-274.
- 이민아(1999). 초등학교 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1997).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 특성 및 실태. 서울 : 집문당
- 정문자·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과 대처전략 분석. 학술진흥재단 보고서.
- 정혜경·김경희(2000). 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1), 137-147.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Arora, C. M. (1996). Defining bullying : Towards a clearer general understanding and mor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7, 317-329.
- Beaver, B. R. (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 stress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129-146.
- Bijttebier, P., & Vertommen, H. (1988). Coping with peer arguments in school-age children with bully/victim proble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 387-394.
- Bolger, N., & Zuckerman, A. (1995). A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ality in stress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90-902.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1, 215-232.
- Bowker, A., Bukowski, W.M., Hymel, S., & Sippola, L. K. (2000). Coping with daily hassles in the peer group during early adolescence : Variations as a function of peer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211-243
- Coie, J. D., Dodge, K. A., Terry, R., & Wright, V. (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 An analysis of aggression Episodes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2, 812-826.
- Crick, N. R., & Grop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 and health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65, 109-128.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pp. 103-196). NY : Wiley.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 E. V. E., Boivin, M., Vit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5, 94-101.
- Hoover, J., & Oliver, R. J.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5, 212-219.
- Kochenderfer, B. K.,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Ladd, B. K., & Skinner, K. (2000).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Chicago, I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 Springer.
- Olfasen R. N., & Viemero V. (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Coping with stress in school among 10-12-year-old Pupils in Aland, Finland. *Aggressive Behavior*, 26, 57-65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Press(Wiley).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ie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Y : John Wiley.
- Olweus, D. (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lt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Fillsdale, NJ :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 Blackwell.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 J. D. A., & Endler, N. S. (1996). Coping and defence : A historical overview. In M. Zeider & N. Endler(Eds.), *Handbook of coping : Theory, research, application (pp. 3-23)*. NY : John Wiley & Sons.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609-612.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615-627.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lee, P. 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 :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 273-282.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Whitney, I., & Smith, P. K. (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